

브루나이의 정체성 외교

김예겸 부원장(HK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 주요 내용

- 브루나이의 외교기조는 ‘유대감’과 ‘소속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브루나이의 정체성 외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함.
- 극소수국가로서의 딜레마, 외부의존의 필연성 및 입헌술탄제 존속 등의 맥락으로 브루나이의 정체성 외교는 더욱 강화될 전망

1 이슈 현황

☒ 브루나이의 외교 기조는 ‘유대감’과 ‘소속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체성 외교(identity diplomacy)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유대감’ 및 ‘소속감’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 유형을 일컫음.¹⁾
- 브루나이는 이러한 ‘정체성 외교’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 국가들과의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슬람 외교(Islamic diplomacy)’에 공을 들여왔음.
 - 특히 1984년 1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브루나이는 동남아지역기구(ASEAN 1984), 국제기구(UN 1984; APEC 1989; ASEM 1996)들과의 동반관계 형성에 적극적이었음.
 - 브루나이는 원칙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 및 영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냉전 종식 이후 중국(1991년 9월 30일) 및 북한(1999년 1월 7일)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동반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
 - 한편, 독립 초기부터 글로벌 이슬람기구(OIC 1984)들과의 동반관계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

표 1. 브루나이의 국제기구 가입

국제기구	가입 시기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1984년 1월 7일(독립이후 1주일 후)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1984년 2월 16일
United Nations (UN)	1984년 9월 21일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1989년 11월 5-6일(창설 회원국)
Asia-Europe Meeting (ASEM)	1996년 3월 1-2일(창설 회원국)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 브루나이의 외교기조는 민감한 국제문제 보다는 인도주의적인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슬람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2004년 12월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의 구호 및 복구, 남부 필리핀의 평화정착, OIC(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와 관련한 인도주의 활동 등이 그 예임.

1) Mikio (2015) 참조

2

원인과 분석

▣ 브루나이의 정체성 외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함.

- 첫 번째 맥락은 잠재적인 외부세력 및 외부적 위협 요소에 취약한 극소국가(microstate, small state)로서의 딜레마임.
 - 극소국가로서 브루나이는 ‘외부위협에 취약’, ‘강대국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의 부족’ 등, 이른바 ‘극소국가 신드롬’을 경험해 왔음.
- 두 번째 맥락은 브루나이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체화된 외부 우방세력과의 동맹의 필연성임.
 - 브루나이는 말라야 연맹(Malayan Union, 1946-1948),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 1948-1963),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 1963년 9월 16일 결성)에서 제외되었었음.
 - 브루나이는 또한 1962년 12월 8일부터 1963년 4월 17일까지 아자하리(A. M. Azahari)가 이끄는 브루나이 인민당(Partai Rakyat Brunei)에 의해 주도된 ‘브루나이 혁명’(Brunei Revolt)을 경험함.
 - . 브루나이 인민당이 1962년 총선에서 압승(유권자의 98% 득표율)하면서 술탄의 권한을 입헌군주제로 제한하려고 시도함.
 - . 브루나이 인민당은 또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였고, 결국 브루나이 혁명은 영국 용병부대인 구르카(Ghurkha)에 의해서 진압되고, 현재까지 2,100여 명의 구르카가 정유시설 및 도시지역에 주둔
- 세 번째 맥락은 입헌술탄제(constitutional sultanate), 즉 ‘말레이 이슬람 군주제’(Malay Islamic Monarchy)의 지속성과 연관이 있음.
 - 볼끼아(Bolkiah) 왕가는 6세기가 넘도록 브루나이를 지배해왔으며 현재까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는 볼끼아 왕가의 절대적인 감독하에 있음.
 - 브루나이의 ‘정체성 외교’는 이러한 입헌술탄제에 기반을 둔 권력을 유지하기 원하는 볼끼아 왕가에 의해서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2. 볼끼아 왕가의 가계표

His Majesty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1946년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왕 (1968년 8월 1일 ~ 현재) - 총리 (1984 ~ 현재) - 브루나이 왕국군 사령관 (1984~현재) - 국방장관 (1986~현재) - 재무장관 (1997~현재)
His Royal Highness Crown Prince AL-Muhtadee Billah (1974년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아들 - 왕세자로 책봉 (1998년 8월 10일) - 브루나이 왕국군 대장 (2004년 3월 ~ 현재) - 현 왕세자비 (Pengiran Anak Sarah)와 결혼 (2004년 9월) - 총리 선임장관 (2005년 5월~현재) - 브루나이 왕국경찰의 감찰부총장 (2005년 5월)
His Royal Highness Prince Mohamed Bolki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왕의 첫째 아우 - 외교통상부 제1장관 (1984년~현재)
Her Royal Highness Princess Masna Bolki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왕의 여동생 - 외교통상 특사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3 전망과 시사점

☐ 극소국가로서의 딜레마, 외부의존의 필연성 및 입헌술탄제 존속 등의 맥락으로 브루나이의 정체성 외교는 더욱 강화될 전망

- 브루나이는 1984년 한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된 이후로 줄 곳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해온 우방국임.
 - 제40차~제43차 유엔총회(1985~1988)에서 한국의 유엔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한국은 결국 1991년 유엔에 가입하게 됨.
 - 1995년 및 2012년 한국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함.
- 브루나이는 이슬람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어 줄 수도 있음.
- 브루나이는 극소국가로서의 딜레마 및 외부의존의 필연성 등의 다양한 맥락으로 인해서 정체성 외

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하싸날 볼끼아 국왕(His Majesty Sultan Haji Hassanal Bolkiah) 이후의 입헌 술탄제의 존속의 도구주의적 수단으로서 이슬람 세계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 외교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 따라서 브루나이와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체성 외교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브루나이가 어떻게 ‘정체성 외교’를 유지하고 진전시켜나가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서 최근 ‘세일즈 외교’가 외교가에서 화두인데, 한국은 ‘신뢰 구축’ 및 ‘유대감’ 등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 외교가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적으로 호혜적인 혜택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음.

EMERiCs

출처

- Kim, Yekyoum (2015) 'Korea-Brunei Relations: 30 Years and Beyond.' In LEE C. L. *et al.* (eds.) *ASEAN-Korea Relations: Twenty-five Years of Partnership and Friendship*. Seoul: Nulmin Books Publishers. pp. 442-483.
- Mikio, Oishi (2015) 'Brunei's Foreign Relations: Maintaining and Developing its Identity in a Rapidly Changing World.' In OOI Keat Gin (ed.) *Brunei: History, Islam, Society and Contemporary Issu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 62-78.
- The Brunei Times